

Daniel: 39 – Sermon Notes

Title: “Warring kings of the North and South part 2”

Scripture: Daniel 11:9-19

Date preached: March 23rd 2025

Scripture: Daniel 11:9-19

9 “Also *the king of the North* shall come to the kingdom of the king of the South, but shall return to his own land. 10 However his sons shall stir up strife, and assemble a multitude of great forces; and *one* shall certainly come and overwhelm and pass through; then he shall return to his fortress and stir up strife.

11 “And the king of the South shall be moved with rage, and go out and fight with him, with the king of the North, who shall muster a great multitude; but the multitude shall be given into the hand of his *enemy*. 12 When he has taken away the multitude, his heart will be lifted up; and he will cast down tens of thousands, but he will not prevail. 13 For the king of the North will return and muster a multitude greater than the former, and shall certainly come at the end of some years with a great army and much equipment.

14 “Now in those times many shall rise up against the king of the South. Also, violent men of your people shall exalt themselves in fulfillment of the vision, but they shall fall. 15 So the king of the North shall come and build a siege mound, and take a fortified city; and the forces of the South shall not withstand *him*. Even his choice troops *shall have* no strength to resist. 16 But he who comes against him shall do according to his own will, and no one shall stand against him. He shall stand in the Glorious Land with destruction in his power.

17 “He shall also set his face to enter with the strength of his whole kingdom, and upright ones with him; thus shall he do. And he shall give him the daughter of women to destroy it; but she shall not stand *with him*, or be for him. 18 After this he shall turn his face to the coastlands, and shall take many. But a ruler shall bring the reproach against them to an end; and with the reproach removed, he shall turn back on him. 19 Then he shall turn his face toward the fortress of his own land; but he shall stumble and fall, and not be found.

9 그 후에는 사리아왕이 이집트를 침략할 것이나 후퇴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0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큰 군대를 모을 것이며 그들 중 하나가 홍수처럼 밀고 들어가 이집트군의 요새를 칠 것이다

11 그때 이집트 왕은 많은 병력을 동원한 사리아왕을 쳐서 수많은 적을 생포할 것이다 12 그는 자기가 승리하여 수많은 적을 죽였다고 자랑할 것이지만 그의 승리는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13 “사리아왕은 돌아가서 전보다 더 많은 군대를 모아 몇 년 후에는 많은 장비를 갖춘 대군을 이끌고 다시 올 것이다

14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이집트 왕을 칠 것이며 네 백성들 가운데서도 난폭한 자들이 예언된 대로 그들과 합세할 것이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15 그때 사리아왕이 이집트에 쳐들어와서 토성을 쌓고 요새화된 성을 점령할 것이다 이집트 군대는 장애물이라도 그들을 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 16 사리아왕은 상대할 자가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며 그는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다

17 “사리아왕은 다시 나라의 모든 힘을 모아 이집트를 완전히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이집트 왕과 평화 조약을 맺어 자기 딸을 그와 결혼시킬 것이지만 그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18 그 후에 그가 해안 지역으로 눈길을 돌려 많은 나라를 정복할 것이나 한 장군이 일어나 그를 보기 좋게 패배시키고 그의 오만을 꺾어버릴 것이다 19 사리아왕은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거기서 패한 이후로 사라질 것이다

Review

Last time we began our examination of chapter number eleven. As I noted to you then it contains one of the most detailed and precise prophecies contained in the bible. The historic references are so

accurate that many critical scholars have questioned whether what we are actually reading here is indeed a prophecy. How, they ask could Daniel know these things with such precision? Naturally these critics cannot simply accept the fact that a supernatural God revealed these things to Daniel. They need a natural explanation.

As a result they claim that what we are reading was written long after these events had transpired. It is therefore more accurately known as “pseudo-prophecy.” A re-telling or explaining of historic events after they have occurred. This helps explain how the writer could have such pinpoint accuracy.

The problem is that embracing such a view undermines the credibility of the writer, and more importantly of the God who we believe inspired the writer. We don't hold that Daniel was like Nostradamus predicting the future. We maintain that God who knows the beginning from the end revealed it to him through the angel. Fulfilled prophecy is given to us as proof that we serve and worship a God who is sovereign over time and the affairs of His creation. To deny this is to call into question who God is. This is why we strongly deny the claims made by critics who say that the book of Daniel was written by an unknown writer in the 2nd century. We believe that the Book of Daniel was written by the prophet Daniel in the 6th century BC.

I probably overwhelmed you last time with a lot of ancient history. I introduced you to a whole host of historic figures some of whom had funny or unpronounceable names. So before we move on with the prophecy let me briefly remind you of some of the main points.

The prophecy as presented by the angel begins after the reign of King Cyrus the Great. After his death three other Persian kings will arise. We know them to be Cambyses, Pseudo-Smerdis and Darius I. After these three monarchs will come a richer and more powerful ruler. This is a reference to King Xerxes I. Exactly as predicted he was stronger than his predecessors. He also had a burning ambition to attack and conquer Greece. An endeavour in which he was unsuccessful.

After Xerxes I the angel speaks of another mighty king who will arise and rule as he wishes or wills. This is a reference to Alexander the Great. Around 150 years after the time of Xerxes I Alexander rose to power. We know from history that he was highly successful and ruled, albeit briefly over a vast empire. Sadly when he died at the age of 32 in 323 BC he had no heir and as a consequence his empire was divided up amongst four of his top generals; Cassander, Lysimachus, Seleucus, and Ptolemy.

From this point on the prophecy will shift to focus on the exploits of just two of these generals and the empires they founded.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this prophecy is concerned primarily with God's people and what will happen to them. This means that we are concerned only with the Seleucid empire located to the north of Israel, and the Ptolemaic empire located to the south. These two empires had a bitter rivalry.

They were frequently engaged in conflict as they attempted to conquer territory or capture possessions belonging to the other.

The prophecy goes on to speak of how Ptolemy I helped Seleucus I stay in power in Babylon. He supported him against those seeking to depose him. It also highlights how Seleucus I would go on to rule over a dominion greater than the empire of the south.

We also looked last time at the attempt that was made to forge peace between the two empires. This was done through the marriage union of Berenice the daughter of Ptolemy II to Antiochus II. Sadly this peaceful union was not to last. When Ptolemy II died Antiochus promptly left Berenice to rejoin his former wife Laodice. Laodice was a vengeful woman and she, or her supporters at her command had Berenice and her young son murdered. As we might imagine Berenice's family were most unhappy at this turn of events. Her brother Ptolemy III swore that he would avenge her death. He led his forces north and captured a vast quantity of booty along with some religious idols which

he carried back to the south.

Following this attack an uneasy peace existed until Seleucus II decided to seek revenge. He launched an attack in 240 BC. He was unsuccessful in this endeavour and later died when he fell off his horse. As the prophecy predicted he was outlived by his rival Ptolemy III all of which the angel told Daniel.

Today we will continue on with our examination of the prophecy.

지난번에 11 장을 시작했는데 성경에서 가장 세밀하고 정확한 예언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많은 비평가들은 이 예언이 실제로 예언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던 말이야? 이 비평가들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다니엘에게 이런 것들을 계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적인 설명을 고안했습니다. 그들은 여기 기록된 내용이 실제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후에 쓰여졌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가짜 예언"이라고 부르는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자가 그토록 정확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관점의 문제는 저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더 중요하게는 저자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노스트라다무스가 했던 것 처럼 미래를 예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취된 예언은 우리가 삼가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시간과 피조물의 일을 주관적으로 다스리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 세기 경에 알 수 없는 어떤 작가가 다니엘서를 썼다고 말하는 비평가들의 주장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기원전 6 세기에 선지자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지난 주에 복잡한 고대 역사 때문에 힘드셨죠.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이름들을 가진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의 예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요점을 간략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천사가 전한 예언은 고레스 대왕의 통치 이후 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세 명의 다른 페르시아 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캄비세스, 가짜 스메르다스, 다리우스 1 세였습니다. 이 세 왕 이후에 더 부유하고 강력한 통치자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크세르크세스 1 세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그는 전임자들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 리스를 정복하려는 불타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 1 세 이후 또 다른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인데, □□□□□ 1 세 시대로부터 약 150 년 후에 권력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가 매우 성공적이었고, 비록 잠깐이기는 했지만 광대한 제국을 통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기원전 323 년 32 세의 나이로 죽었을 때 후계자가 없었고 그 결과 그의 제국은 4 명의 장군들 즉,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가 분할 통치하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예언은 이들 네 장군들 중 두 장군과 그들이 세운 제국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이유는 이 예언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날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셀레우코스 제국과 남쪽에 위치한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이 그 예언의 중심입니다. 이 두 제국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영토를 정복하거나 다른 쪽이 가진 것을 탈취하려고 시도하면서 자주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예언은 셀레우코스 1 세가 바빌론에서 폐위되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도록 프톨레마이오스 1 세가 도운 것에 대해 말합니다. 또한 셀레우코스 1 세가 어떻게 남쪽 제국보다 더 큰 영토를 통치하게 될 것인지 강조합니다. 두 제국 사이에 평화를 이루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프톨레마이오스 2 세의 딸 베레니케와 안티오코스 2 세의 결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평화 연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 세가 죽자 안티오쿠스는 즉시 베레니케를 떠나 전처 리오디케와 다시 합쳤습니다. 리오디케는 복수심이 강한 여자였고 그녀의 부하들은 베레니케와 어린 아들

을 살해했습니다. 베레니케의 가족은 이런 사건의 전개에 매우 불만이었습니다. 그녀의 형제 프톨레마이오스 3 세는 그녀의 죽음을 복수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북쪽으로 이끌고 종교적 우상과 함께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탈취하여 남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공격 이후 셀레우코스 2 세가 복수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불안한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기원전 240 년에 공격을 시켰지만 실패했고 나중에 밑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예언이 말했듯이 그는 라이벌 프톨레마이오스 3 세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은 예언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9 “Also the king of the North shall come to the kingdom of the king of the South, but shall return to his own land.

Last time I spoke of how Seleucus II (the king of the north) sought to attack the Ptolemaic Empire ruled by Ptolemy III (the king of the south). Seleucus wanted to restore the honour and glory of his empire as well as re-capturing some of the booty and religious idols that were taken by Ptolemy III. You see in the ancient world the gods of your nation were represented by the idols you set up in their shrines or holy places. To have the idol images taken by an enemy was a terrible humiliation both for you, and for your god. It meant you had lost the idol before who you were to make offerings and worship, and you risked the ire of the god whose image you had let be captured. So Seleucus wanted his idols back.

The raid however was to prove unsuccessful. Although Seleucus was able to take his forces into Egypt he was not able to hold the land or retrieve the idols that had been taken. He was forced to return empty handed to his own land in the north. However the Seleucid fortunes are about to change. Let us read on.

9 그 후에는 사마 왕이 이집트를 침략할 것이나 후퇴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셀레우코스 2 세(북방의 왕)가 프톨레마이오스 3 세(남방의 왕)가 다스리는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을 공격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셀레우코스는 자신의 제국의 명예와 영광을 회복하고 프톨레마이오스 3 세가 빼앗은 전리품과 종교 우상 일부를 도쳤고 싶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신전이나 성지에 세운 우상들이 자기 나라의 신들을 대표했습니다. 적에게 우상의 형상을 빼앗기는 것은 그들과 그들의 신 모두에게 끔찍한 굴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물을 바치고 경배할 대상인 우상을 잃은 것이고, 그 빼앗긴 우상이 대표하는 신의 분노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는 우상을 도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셀레우코스는 그의 군대를 이집트로 이끌었지만, 빼앗긴 땅을 도쳤거나 우상을 도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반손으로 북쪽에 있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셀레우코스의 운명이 바
□ □□□ 계속 읽어봅시다.

10 However his sons shall stir up strife, and assemble a multitude of great forces; and one shall certainly come and overwhelm and pass through; then he shall return to his fortress and stir up strife.

Seleucus II had two sons. Their names were Seleucus III Soter (226-223 BC) and Antiochus III Magnus (223-187 BC). His first son Seleucus III reigned for only a brief time. He was not a popular ruler. It was said that he lacked character and was a weak and sickly man. Not the kind of man that ancient people wanted as their monarch.

He was assassinated after ruling for two just years. It was the second son, Antiochus III who would go on to greatness.

Antiochus III would come to be known as Antiochus the Great. Although we might add at this point that this was a term he coined for himself. He also referred to himself as *Basileus Megas* meaning “Great King.” So we might say that he was far from being a humble or demure individual.

The prophecy predicts that he would assemble a great military force. This is indeed what happened. He put together an army of 75,000 men and made multiple attacks against Egypt (the Ptolemaic

Empire). As he made his way south Antiochus captured city after city in the regions of modern-day Syria, Lebanon, and Israel. In that sense, he "overwhelmed" and "passed through" on his way towards Egypt in the south. Although he never actually conquered Egypt itself he did push their borders back. Prior to the time of Antiochus III the northern border of Egypt had been Syria. After his successful campaign it was the southern border of Israel.

The verse concludes by saying he returned to his fortress. This is most likely the fortress in Raphia an Egyptian outpost on the Palestine frontier. This will be the site of the battle we read about in the next verse.

10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군대를 모을 것이며 그들 중 하나가 홍수처럼 밀고 들어가 이집트군의 요새를 칠 것이다

셀레우코스 2 세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셀레우코스 3 세 소테르(기원전 226-223 년)와 안티오코스 3 세 마그누스(기원전 223-187 년)였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 셀레우코스 3 세는 짧은 기간 동안 통치했고,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격이 부족하고 병약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군주로 원했던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과 2 년 동안 통치한 후 암살당했습니다. 둘째 아들 안티오코스 3 세는 강력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안티오코스 대왕 Antiochus the Great 으로 알려졌지만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칭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을 바실레우스 메가스 *Basileus Megas* 라고 불렀는데, "위대한 왕"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다지 겸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언은 그가 거대한 군대를 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75,000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집트(프톨레마이오스 제국)를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안티오쿠스는 현재의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지역의 도시들을 하나하나 점령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남쪽 방향으로 이집트를 향해 가는 길에 "홍수"처럼 "밀고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집트 자체를 정복한 적은 없었지만 국경을 뒤로 밀어 부쳤습니다. 안티오코스 3 세 이전에는 이집트의 북쪽 국경이 시리아였지만, 그의 성공적인 원정 이후 이스라엘의 남쪽까지 국경이 밀렸습니다.

이 구절은 그가 이집트군의 요새를 쳤다고 말하면서 끝맺는데, 이것은 아마도 팔레스타인 국경에 있는 이집트의 전초 기지인 라피아의 요새일 것입니다. 이 곳이 다음 구절에서 읽을 전투 장소가 될 것입니다.

11 “And the king of the South shall be moved with rage, and go out and fight with him, with the king of the North, who shall muster a great multitude; but the multitude shall be given into the hand of his *enemy*. 12 When he has taken away the multitude, his heart will be lifted up; and he will cast down tens of thousands, but he will not prevail.

As the large army led by Antiochus III was making its way south you may wonder what the king in Egypt was doing. You'd like to think that he was busy gathering his forces and preparing to counter-attack. The man on the throne at this time was Ptolemy IV Philopater. History depicts this man as being lazy, ineffective and inept. The encyclopaedia Britannica describes him as being feeble. He was frequently criticised for being more interested in luxury and court ceremony than government,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It is for these reasons that he is often regarded as the king who began the decline of the Ptolemaic kingdom. However, even this less than stellar leader could not sit back and do nothing in the face of a northern invasion. He was as we read here moved with rage.

He assembled an army which according to the ancient historian Polybius comprised 70,000 foot soldiers, 5000 cavalry and 500 war elephants. When his army was ready they marched north to engage the enemy. The battle took place in Raphia in the year 217 BC. The armies of the north and south that took the field that day were fairly well matched. The battle that ensued would go on to be one of the biggest battles that took place in the ancient world. You may also be interested to learn the following detail. The Battle of Raphia is also known as the “Battle of the elephants.” This is because it is the only known battle from the ancient world in which both sides used war elephants.

The Ptolemaic forces of the south prevailed. The Seleucid army suffered a crushing defeat and fled. According to Polybius they lost 10,000 foot soldiers, 300 cavalry and 102 elephants. Additionally 4000 men were taken as prisoners. The success of the victory went to Ptolemy's head. As we read in the prophecy, “his heart was lifted up.” Assuming that his kingdom was now safe he did not press home his advantage. He was content to acquire all of Palestine and not advance any further. He returned to his palace to wallow in excess and luxury. So, just as the prophecy predicted he did not “prevail” in the sense that he pushed on to complete the victory over the north. Let us read on.

11 그때 이집트 왕은 많은 병력을 동원한 사리아 왕을 쳐서 수많은 적을 생포할 것이다 12 그는 자가 승리하여 수 많은 적을 죽였다고 자랑할 것이지만 그의 승리는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13 “사리아 왕은 돌아가서 전보다 더 많은 군대를 모아 몇 년 후에는 많은 장비를 갖춘 대군을 이끌고 다시 올 것이다

안티오쿠스 3 세가 이끄는 대군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이집트의 왕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가 군대를 모으고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 이집트 왕은 프톨레마이오스 4 세 필로파테르였습니다. 역사는 그가 게으르고, 무능했다고 묘사합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그를 무력한 왕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정부, 정치, 외교 관계보다 사치와 궁정 예식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쇠퇴가 그때 부터 시작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무능한 지도자도 북쪽의 침략에 직면하여 기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고대 역사가 폴리비우스에 따르면 그는 보병 70,000 명 기병 5,000 명 전쟁 코끼리 500 마리로 구성된 군대를 모았습니다. 군대가 준비되자 그들은 북쪽으로 진군하여 적들과 맞섰습니다. 이 전투는 기원전 217 년 라피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날 전장에 나선 북부와 남부의 군대는 전투력이 비등했습니다. 그 전투는 고대 세계에서 벌어진 가장 큰 전투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라피아 전투가 "코끼리 전투" 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고대 전쟁에서 양측이 모두 전쟁 코끼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남부의 프톨레마이오스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셀레우코스 군대는 참패하여 도망쳤습니다. 폴리비우스에 따르면 그들은 보병 10,000 명 기병 300 명 코끼리 102 마리를 잃었습니다. 게다가 4,000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 승리로 인해 프톨레마이오스는 교만해졌는데, 예언에서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고 표현합니다. 그의 왕국이 이제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자신의 이로운 상황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을 획득한 사실에 만족하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궁으로 돌아가 호사와 사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말한 대로 그는 북쪽에 대한 승리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승리하자" 없었습니다. 계속 읽어 보시다.

13 For the king of the North will return and muster a multitude greater than the former, and shall certainly come at the end of some years with a great army and much equipment.

14 “Now in those times many shall rise up against the king of the South. Also, violent men of your people shall exalt themselves in fulfillment of the vision, but they shall fall.

As we have just seen Antiochus III suffered a serious setback at the battle of Raphia. However this did not massively dent his ambitions. Over the next decade he turned his attentions east and north with considerable success. He rebuilt his military and prepared them for a time when they might return to avenge themselves against the south. An opportune moment came when Ptolemy IV died in 204 BC. He was succeeded by his 6 year old son Ptolemy V Epiphanies. This was the perfect time to strike, and so Antiochus led his large and well-equipped army south. He was as we read in verse 14 not alone.

The “many” allies who joined him included King Philip V of Macedonia and also a considerable number of zealous Israelites. They are referred to here as the “**violent men of your people.**” In other translations this is rendered as “**robbers.**” The Hebrew term that's used here means “sons of breaking,” or “children of breaking.” It refers to people who don't keep their promises. More simply we might refer to such people as rebels or law-breakers. In reality these men were strong-willed Jewish revolutionaries. Jewish mercenaries with a cause. They desired Judean independence and

believed that this could be achieved if Antiochus prevailed. It was a vain and foolish hope. As we read at the end of verse 14 they shall fall. This means that despite their best efforts these men will fail to win back their land.

So picture the scene. All these allies with their differing aspirations or motivations united in their hatred of the Ptolemaic Empire marching south. Who will prevail? North or south? Let us read on and find out.

13 “사리아왕은 돌아가서 전보다더 많은 군대를 모아 몇 년 후에는 많은 장비를 갖춘 대군을 이끌고 다시 올 것이다 14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이집트 왕을 칠 것이며 네 백성들 가운데서도 난폭한 자들이 예언된 대로 그들과 합세할 것이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방금 보았듯이 안티오쿠스 3 세는 라피아 전투에서 심각한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야망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10 년 동안 그는 동쪽과 북쪽으로 관심을 돌려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재건하고 남쪽에 대한 복수를 위해 돌아올 준비를 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4 세가 기원전 204 년에 죽었을 때 기회가 찾아 왔습니다. 그는 6 살 된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5 세 에피파니 에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은 공격하기에 완벽한 때였고, 안티오쿠스는 잘 조직된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14 절에서 보듯이 그는 혼자서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기담한 "많은" 동맹자 중에는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5 세 왕과 상당수의 열성적인 아시리아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네 백성들 가운데서도 난폭한 자들"로 언급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강도들"로 번역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용어는 "파괴의 아들들 sons of breaking"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간단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을 번역자나 법을 어긴 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강한 의지의 유대인 혁명가들이었습니다. 대의를 가진 유대인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티오쿠스가 승리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유대의 독립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희망이었습니다. 14 절의 마지막에서 보듯이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이루는 데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서로 다른 열망과 동기를 가진 이 동맹자들은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에 대한 중요 하나로 연합하여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누가 승리할까요? 북쪽일까요, 남쪽일까요? 계속 읽어 봅시다.

15 So the king of the North shall come and build a siege mound, and take a fortified city; and the forces of the South shall not withstand him. Even his choice troops shall have no strength to resist. 16 But he who comes against him shall do according to his own will, and no one shall stand against him. He shall stand in the Glorious Land with destruction in his power.

The angel tells Daniel that the king of the north (Antiochus III) will come and build a siege mound. This instantly tells us that a siege was taking place. Let me tell you a little about how sieges can be managed. The side initiating the siege has two options, to be passive or aggressive. They can decide to surround the city of fortress and simply wait for those inside to give in. This is the passive approach. This can take a very long time and means you have to supply your own troops whilst you wait.

The other option is to attack and hope to break through the walls and bring things to a more rapid conclusion. This is the aggressive approach. There are a number of ways you could do this. You could attempt a direct assault against the walls. Alternatively you can dig tunnels that weaken the foundations of the walls, use a battering ram to break through, or build a siege mound. On this occasion a siege mound is the preferred option.

Siege mounds were hills or ramps built out of dirt, rubble, and wood. When an army was attacking a walled city or fortress they were very useful. Having an elevated mound enabled the attackers to get closer to the walls in order to destroy them, or more effectively attack the enemy inside. In this case Antiochus III utilises a mound to capture a fortified city.

The city in question was most probably Sidon. This ancient port city lying about 25 miles south of Beirut was an important gateway to the south.

18 After this he shall turn his face to the coastlands, and shall take many. But a ruler shall bring the reproach against them to an end; and with the reproach removed, he shall turn back on him. 19 Then he shall turn his face toward the fortress of his own land; but he shall stumble and fall, and not be found.

Antiochus III was greatly disappointed that his scheme to take Egypt had failed. But, he was a man of action and therefore determined to go after other territory.

He attacked Egyptian colonies in Asia Minor and settled 2,000 families from Mesopotamia in Lydia and Phrygia. With this complete he then looked toward Greece. Greece as you probably know is an area famous for its coastlines. Initially, he enjoyed a number of successes. But this was only for a short time. The Romans were not about to let someone invade and capture their land or harass their allies. They therefore rallied their troops. Part of the Roman's success lay in the prowess of their navy. The Romans soon gained naval dominance. Their ships and fighting techniques were superior. The Seleucid navy was outmatched in every encounter. The Romans won decisive naval battles in the straits of Thermopylae, at Phocaea and at Myonnesus.

The Romans were also victorious on land. Most notably at the battles of Thermopylae in 191 BC and at Mount Siphylus in 190 BC. The Romans then sent the general Lucius Cornelius Scipio Asiaticus to drive Antiochus back. Scipio defeated him at Magnesia in 190-189 BC and forced him permanently to the east. The might of the Roman forces were such that Antiochus was eventually forced to agree to peace terms in 188 BC (the Treaty of Apamea). The terms for peace included being forced to pay restitution to Rome for his attacks, giving up all captured land, disbanding the navy and the use of war elephants. He was also made to leave his son, Mithradates behind as a political hostage. This boy would grow up to become Antiochus IV Epiphanies.

So exactly as prophesied “a ruler” (Scipio and other Roman generals) would come along and put an end to Antiochus III reproach or contempt.

Verse 19 tells us of the fate of Antiochus III. After his humiliating defeat in Asia Minor he was forced to return home. Certainly Antiochus III had earned his title of "Great" due to his impressive military victories. Had he been content with his gains across Asia his reputation would have been secure. However his pride and arrogance propelled him on. He was determined to capture Greece and take on the might of Rome. His overreach and failure in Asia Minor caused major problems in his empire. It led to further rebellions among conquered territories, and reduced Antiochus' power.

The death of this great figure in history is far from being a fitting end to a mighty leader. In 187 BC he was assassinated by a mob as he looted a temple of Baal in Susa to pay tribute to Rome. He shall indeed stumble and fall exactly as the angel predicted.

Next week Lord willing we continue on with the angel's prophecy.

18 그 후에 그가 해안지역으로 눈길을 돌려 많은 나라를 정복할 것이나 한 장군이 일어나 그를 보기 좋게 패배시키고 그의 오만을 꺾어버릴 것이다 19 사리아왕은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가서 패한 이후로 사리질 것이다

안티오쿠스 3 세는 이집트를 차지하려는 계획이 실패한 데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주저않지 않고 다른 영토를 차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의 이집트 식민지를 공격하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2,000 가구들을 리디아와 프리기아에 정착시켰습니다. 이것이 끝나자 그는 그리스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스는 해안선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처음에 그는 몇 차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깐일 뿐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누군가가 침략하여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거나 동맹국을 괴롭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해군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의 해군 전력은 곧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함선과 전투 기술은 우수했습니다. 셀레우코스 해군은 모든 전투에서 로마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테르모필레 해협, 포케아, 미오네수스에서의 해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육지에서도 승리했습니다. 특히 기원전 191 년 테르모필레 전투와 기원전 190 년 시필루스 산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로마인들은 루시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크피오 아시아티쿠스 장군을 보내 안티오쿠스를 몰아냈습니다. 스크피오는 기원전 190-189 년 마그네시아에서 그를 물리치고 그가 영구히 동쪽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로마군의 위력에 굴복해서 안티오쿠스는 결국 기원전 188 년(아피메아 조약) 평화 조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 조건에는 로마를 공격한 댓가로 배상금을 지불하고, 모든 점령지를 포기하고, 해군을 해산하고, 전쟁 코끼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아들 미트라다테스를 정치적 인질로 남겨두어야 했는데, 이 소년이 자라서 안티오쿠스 4 세 에피파니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예언된 대로 "장군"(스크피오와 다른 로마 장군)가 나타나 안티오쿠스 3 세의 오만을 꺾어버렸습니다.

19 절은 안티오쿠스 3 세의 운명을 말해줍니다. 소아시아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후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3 세는 인상적인 군사적 승리로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가 아시아 전역에서 얻은 승리에 만족했다면 그의 명성은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만함과 거만함이 그를 계속 행군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를 점령하고 로마의 위력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아시아에서의 그의 지나친 야욕과 실패는 그의 제국에

역사상 거대한 인물이었다 그의 죽음은 강력한 지도자에게 어울리는 그런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187 년 그는 로마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 수사에 있는 비알 산전을 약탈하다가 폭도들에게 살해 당했습니다. 그는 예언대로 비틀거리고 쓰러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 천사의 예언을 계속하겠습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two lessons drawn from today's passage.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Siding with the enemy

As we saw in today's account some of the most patriotic and zealous Jews of the day decided to support the Seleucids. They were tired of being under the crushing boot of the Ptolemaic Empire. Life, they thought would be better for them if the Seleucids were in charge. They might even be allowed to enjoy some freedom and get to practice their religion. Therefore they joined them in the conquest of the south and presumably fought and died to help the Seleucids win. Or to put it more crudely they joined one group who hated and wanted to oppress them against another group they thought were even worse. And what was the reward for their blood, sweat and tears? Absolutely nothing. Not surprisingly when it came time for the Seleucids to reward them for their efforts they were less than forthcoming. The Jews dreams of liberation and freedom vanished before their eyes. Today Christians are sometimes tempted, just like the Jews were to side with the enemy. We think that life will be better or easier or that we can have a greater degree of success if we unite.

Let me give you an example. On many cultural issues Christianity and Islam seem to converge. We seem to share similar viewpoints. Both religions oppose homosexual acts, same sex marriage and abortion. Both religions promote the importance of strong families. Both religions are against the use of mind-altering drugs in a recreational setting. So one might argue that these shared values mean that we ought to work together. We could join forces for example to oppose abortion. Wouldn't we be more effective if we combined our forces? Politically speaking we'd have a louder voice that politicians would be forced to listen to.

I'm sure that the Jews had similar discussions when they considered whether to side with the Seleucids or not. They chose badly and here's why. Even if your enemy smiles sweetly and offers you a box of chocolates they are still your enemy.

We share this planet with many other religions. The world, which is Satan's domain will try and say that they are all equally valid ways of approaching the divine. You may even hear people make the very foolish statement that Christians and Muslims worship the same God. Do not be deceived.

Yahweh and Allah are not the same. So as to whether Christians and Muslims can or should work together my answer is emphatic. They cannot. That is not to say we should hate Muslims and treat them badly. Far from it, they are precious peopl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Therefore they deserve our love and compassion. Most importantly they need to hear the gospel of Jesus Christ.

However we cannot work with them because beyond the very superficial similarities we share we are fundamentally different. We differ on the most important issues. Who is God? What is He like? How is a person saved? How does God want us to live? The truth is that we can never truly be united because they are wrong about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Ask yourself the question about how such a union will work in practice. Who will compromise? Who will back down on what they believe? No born again Christian would, and neither would a devout Muslim. This is why we cannot side with Islam.

Therefore we must be very careful with who we align ourselves with. We do not want to follow the example of the Jews who sided with the Seleucids in the hope of being rewarded and ended up with nothing. We are on Christ's side. He is the truth and it is to Him and Him alone we are to be united.

1 적과 한편이 되다

오늘의 설교에서 보았듯이 당시 가장 애국적이고 열성적인 유대인 중 일부는 셀레우코스 왕조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의 압제에 지쳤고, 셀레우코스 왕조가 통치한다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를 누리면서 종교 생활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방 제국 정복에 기대었고 셀레우코스 왕조의 승리를 돕기 위해 싸우고 죽었습니다.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들은 더 악하다고 믿었던 남방 제국에 맞서 그들을 미워하고 억압하고자 했던 북방 제국에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피, 땀, 눈물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었나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유대인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줄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해방과 자유에 대한 꿈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적과 한편이 되도록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 또한 때때로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연합하면 삶이 더 나아지거나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문화적 이슈에 있어서 기독교인과 이슬람인들은 의견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관점을 공유합니다. 두 종교 모두 동성애 행위, 동성 결혼, □□□□□□□□. 두 종교 모두 가족의 중요성을 장려합니다. 두 종교 모두 정신을 변화시키는 약물을 오락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따라서 두 종교가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므로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태에 반대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힘을 합쳐 더 큰 목소리를 내면 정치인들이 더 잘 듣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이 셀레우코스 편을 들지 고민할 때 비슷한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이 아무리 달콤하게 미소를 지으며 초콜릿 상자를 주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적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많은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사탄의 영역인 세상은 그것들이 모두 동등하게 신의 영역에 접근하는 타당한 방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같은 신을 경배한다는 매우 어리석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호와와 알리는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함께 일할 수 있는지 또는 함께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답변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슬림을 미워하고 그들을 적대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사랑과 연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유하는 아주 피상적인 유사점을 넘어 근본적으로 다

르기 때문입니다. 두 종교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다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들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연합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타협하겠습니까? 누가 자신이 믿는 바를 굽히겠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굽히지 않을 것이고, 독실한 무슬림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슬람과 한편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연합할 것인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보상을 바라며 셀레우코스 편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유대인의 예를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편입니다. 그분은 진리이시며, 우리는 오직 그분과만 연합해야 합니다.

2 Beware of selfish ambition

At what point does ambition turn into over-ambition? That's a tough question to answer. It depends on the person and situation. As we saw in today's account Antiochus III allowed his pride to come before reason and he became over-ambitious. Instead of settling for what he had gained he went too far. Had he stopped in Asia and consolidated what he had won he would still have been considered great. He might have ruled happily for many more years. But, he would not settle for this, he wanted to be more than great and paid a heavy price.

When we were young we had certain dreams of ambitions. Ambition in the young is seen as a good thing. I often ask my students what they want to be in the future. I expect a certain degree of ambition in their answers. They will tell me things like, "I want to be a judge, an astronaut, a soccer player, an actor or a diplomat." These are all careers worth aspiring after. I'd probably consider an answer of, "I want to be a shop worker, a road sweeper or a bus driver" as lacking ambition.

Although these jobs are important and need to be done. But again when does over-ambition appear? When do we need to measure and modify reality with ambition?

We like to tell the young that they can be whatever they want to be but that's not really true. We need to balance dreams with the realistic possibility of attaining them. Is it possible that a short, non-athletic student will play basketball in the NBA? Probably not.

In our Christian lives we also need to be aware of possible over-ambition. There is only so much that one person, one church or one organisation can do. Now of course we must always factor in God and how He might help.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This is true, but equally we need to be aware of what lies behind our ambition. Are we seeking things for God's glory or are we selfish and self-centred in our ambitions? The Bible frequently cautions against selfish ambition, which is ambition driven by self-interest rather than the glory of God or the good of others.

Do we want people to come to our church because we can boast about the size of our congregation? That's a selfish ambition. Or do we want people to come because God will get the glory when we share the gospel with them? That's a good ambition. Do we want to study God's word so that we can boast about our knowledge or impress others at the bible study? That's selfish. Or do we want to immerse ourselves in God's Word because it draws us closer to Him and pleases Him when we do so? That's a good ambition.

We also need to be aware of ambition when it comes to wealth. The desire or ambition for money or material possessions can often be a snare in our lives. We have all been greatly blessed by God in so many ways. Let us be grateful and content with His generous bounty. Let us be aware of greed or over-ambition in the area of wealth.

In conclusion may we all learn through the guidance and wisdom of the Holy Spirit to live in well balanced ways. Lord we pray for your wisdom in this area. We ask that you make us aware of when the ambitions we have are leading us in a selfish direction. Lord may our number one concern be about living in a way that seeks to bring you glory and not about being selfishly fixated upon

ourselves.

May we all desire to serve others well and seek to live good God pleasing lives.

2 이기적인 야망을 조심하세요

야망은 어느 시점부터 과도한 야망으로 변할까요?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안티오쿠스 3 세는 이성보다 자존심을 앞세워 지나친 야망을 품었습니다. 얻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너무 멀리 갔습니다. 아시아에 머물고 이미 얻은 것을 통합했다면 여전히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더 오랫동안 행복하게 통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고, 위대한 것 이상을 원했고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야망적인 꿈을 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야망은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종종 학생들에게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묻습니다. 저는 그들의 답변에서 어느 정도 야망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저는 판사, 우주 비행사, 축구 선수, 배우 또는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직업은 모두 열망할 만한 직업입니다. "가게 종업원, 도로 청소부 또는 버스 운전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대답은 아마도 야망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중요하고 필요한 직업인데도 말입니다. 다시 한번 묻자면 과도한 야망은 언제부터 일까요? 언제 현실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야망을 수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키가 작고 운동에 재능이 없는 학생이 NBA 에서 농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에서도 야망이 과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교회 또는 한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그분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야망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추구합니까? 아니면 그 야망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성경은 종종 이기적인 야망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기적인 야망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한 야망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려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좋은 야망입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을 자랑하거나 성경 공부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까? 그것은 이기적입니다.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좋은 야망입니다.

또한 부에 관련된 야망이 있습니다. 돈이나 물질적 소유에 대한 욕망이나 야망은 우리 삶에서 벗어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관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부를 추구하는 탐욕이나 지나친 야망을 경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와 자혜를 통해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분야에서 당신의 자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야망이 우리를 이기적인 방향으로 이끌 때 그것을 알아차리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